



보도자료 | 즉시 배포 가능

WIM-Z, 첫 현장 실증 결과 발표: 가정용 AI 로봇, 첫 가정 배치에서 반려견 짚음 75% 이상 감소

미국 뉴욕 일대 가정 6 곳과 애견 위탁시설 1 곳에서 7 건의 실증 진행 — 이 중 3 가구가 로봇 구매, 중국 선전(深圳)에서 양산 평가 진행 중 · 창업자는 울산 현대 엔지니어 가족의 사위

뉴욕, 2026 년 10 월 6 일 — 반려견이 혼자 있는 동안 차분함을 유지하도록 자율적으로 훈련하는 가정용 로봇 WIM-Z(웜지)가 오늘 첫 7 건의 현장 실증 결과를 발표했다. 로봇이 자율 “사일런트 가디언(Silent Guardian)” 세션을 반복 수행한 두 가정에서 짚음은 각각 75%와 83% 감소했다. 한 마리는 시간당 161 회에서 40 회로, 다른 한 마리는 317 회에서 53 회로, 2~3 주에 걸쳐 줄어든 것이다. 로봇의 개입 후 개가 조용해진 비율은 첫 번째 가정에서 43%에서 73%로, 두 번째 가정에서 31%에서 67%로 높아졌다.

이번 7 건의 실증은 2026 년 5 월부터 9 월까지 미국 뉴욕 일대의 가정 6 곳과 애견 위탁시설 1 곳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한 로봇 4 대를 통해 진행됐다. 기록된 50 회 세션, 총 60 시간의 가동 동안 WIM-Z 는

2,100 회 이상의 짚음을 감지하고 107 회의 자율 개입을 수행했으며 약 500 회의 훈련 보상(간식)을 제공했다. 모든 이벤트는 클라우드 없이 로봇 자체에서 처리·기록됐다. 실증 7 곳 중 3 곳은 로봇을 구매했고, 2 곳은 기기를 계속 사용 중이다.

“시중의 반려동물 카메라는 모두 개가 짚고 있다고 알려줄 뿐, 그중 어느 것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WIM-Z 창업자 겸 CEO 모건 힐(Morgan Hill)은 이렇게 말했다. “WIM-Z는 전문 훈련사가 쓰는 것과 같은 강화 루프를 실행합니다. 문제 행동이 시작되는 순간 포착하고, 개가 이미 알고 있는 차분한 행동을 유도한 뒤, 정확한 타이밍에 간식으로 보상합니다. 그 후에는 간식을 점차 줄여 차분함이 스스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수치는 이 루프가 실제 가정에서, 실제 개에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작동한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작동 원리

WIM-Z는 라즈베리파이 5(Raspberry Pi 5)와 Hailo-8 AI 가속기로 구동된다. 온디바이스 모델이 개를 감지하고 짚음을 분류하며, 간식을 내보내기 전에 자세를 읽어 개가 진정했는지 확인한다. 모든 이벤트는 기기에서 타임스탬프와 함께 각 개의 행동 기록에 저장되므로, 결과는 추정치가 아니라 측정값이다. 로봇은 개와 함께 이동하도록 설계됐으며,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은 투자 유치 이후 로드맵에 포함돼 있다.

초기 고객 및 생산

WIM-Z는 첫 유료 선주문을 접수했으며, 여기에는 “AI 반려동물 로봇”을 검색해 제품을 찾은 소비자의 정가 주문도 포함된다. 양산 시제품은 중국 선전의 기존 제조사에서 생산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초기

생산분(파운더 배치) 가격은 미화 799 달러이며, wimzai.com 에서 환불 가능한 99 달러의 예약금으로 예약할 수 있고 환불 보장이 적용된다.

“베직(Bezik)이 짚기 시작하려는 걸 여러 번 막아줬어요. 지금은 오히려 로봇 바로 옆에서 잠을 잡니다. 새 친구가 생긴 거죠. 정말 놀랐어요.” 뉴욕 일대에 거주하는 Jenny Kim 씨의 말이다. 김 씨의 반려견 베직은 첫 실증 참여견 중 하나였으며, 김 씨는 실증 후 로봇을 구매했다.

“정말 만족스러워요. 지기(Ziggy)가 기대했던 것보다 로봇 말을 잘 듣고, 덜 짚는 대신 간식을 더 받는 것도 싫어하지 않아요. 제가 집에 없을 때 아이를 지켜봐 주고 이웃과의 관계도 편하게 해주니 정말 좋습니다.” 뉴욕의 패티 골드(Patty Gold) 씨의 말이다. 골드 씨의 반려견 지기는 실증 기간 동안 짚음이 83% 감소했으며, 골드 씨 역시 로봇을 구매했다.



그림 - 2027 년 초 양산 모델

WIM-Z 소개

미국 뉴욕 일대에서 탄생한 WIM-Z(Watchful Intelligent Mobile Zen)는 반려견 훈련과 행동 교정을 위한 자율형 온디바이스 AI 로봇으로, 반려견을 일상적으로 집에 혼자 두는 약 6,500 만 미국 가구를 위해 개발됐다. 골드만삭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 출신이자 하드웨어·머신러닝·펌웨어·앱을 혼자 개발한 풀스택 기술 창업자 모건 힐이 설립했으며, 델라웨어주 법인(C-Corp)으로 뉴욕 대도시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모건 힐은 울산의 현대 엔지니어 가족의 사위이기도 하다. 2026 년 4 월 가특허(provisional patent)를 출원했다. 자세한 내용은 wimzai.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 문의

모건 힐(Morgan Hill), 창업자 겸 CEO · morgan@wimzai.com · 시연 영상 및 리뷰용 기기는 요청 시
제공 · 10 월 울산 현지 시연 가능

— — —